

통합연구 제19권 1호(통권 46호)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

특집논문

4

맘몬이즘 (Mammonism)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과  
극복 방안연구

김정일( VIEW/Trinity Western University )

I. 서론

II. 맘몬이즘이란 무엇인가?

III. 맘몬이즘이 한국교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 분석

1. 기복신앙의 창궐
2. 성장지상주의와 물량화의 팽배
3. 변영신학의 확산

IV.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

V. 맘몬이즘 극복을 위한 교회의 방안

1. 성경적 축복관의 재정립
2. 성경적 물질관의 재정립
3. 배움과 나눔의 실천
4.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VI. 결론

## I. 서론

선교 120년을 넘어선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역사 가운데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성장을 경험했다. 8.15 해방 당시 약 30만으로 추산된 크리스천 인구는 20년 후인 1965년엔 4배가 넘는 12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통계인 10년 후인 1975년엔 약 350만 명에 이르렀고, 1980년엔 개신교 신자만으로 71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2004년의 한미준의 한국교회 리포트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는 21.6%로 전체 인구로 환산할 경우 약 1050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sup>1)</sup> 불교와 유교의 오랜 전통 속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단시일 내에 국민의 22% 가까운 인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의 10대 교회 가운데 6개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1만 422명의 선교사를 163개 선교단체를 통해 164개국에 파송했다.<sup>2)</sup> 도움을 받던 한국이 전세계를 향해 복음의 빛을 갖고 있는 것이다. 수적 성장 뿐 아니라,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영성은 세계교회에 좋은 도전을 주고 있다.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로 대표되는 한국교회의 영성은 지성화된 서구교회에 '열정의 영성과 신앙의 야성'을 보여주며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아쉽게도 90년대 이후 사회의 집적적인 지탄을 받으며 그 색을 바래가고 있다. 또한 수적인 성장을 멈춘지도 이미 오래다. 일부에서는 성장정체보다는 실질적 감소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몇 가지 이유를 기억해 보면, 90년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각종 대형 비리 속에는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90년대 이후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의 담임목사 리더십의 세대교체를

1) 이태형, "한국교회미래 리포트," 국민일보, 2005년 1월 26일, 3쪽.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는 '한국교회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2004년 9월 13일부터 한달간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각 1000명을 조사한 결과와 2004년 7월~10월 일반인 628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불교(26.7%), 기독교(21.6%), 천주교(8.2%), 기타종교(0.6%)로 나타났다.

2) 한국선교연구원 편, 한국선교랜드북 1990~2003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시작하면서 ‘목회세습’의 문제가 기독교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는데 한 역할을 했다. 또한 최근의 광성교회 사태와 같은 교회 내부의 다툼과 분열, 심지어 교회 안에서 폭력까지 동원되는 일들, 그리고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이겠지만 목회자의 재정 비리와 성추문과 같은 각종 도덕적 비리들, 금권선거, 기독교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등의 일련의 문제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기독교는 그야말로 ‘세상에 밝히려는 소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웃을 돌아보기 보다는 성장제일주의와 물량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교회를 외면한지 이미 오래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깊은 위기를 지나고 있다. 논자는 한국교회의 위기의 중요한 한 원인을 교회 내에 세상의 여러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침으로 복음의 색을 바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데올로기의 목표는 현세적이다. 양승훈 교수는 ‘이데올로기란 어디까지나 인간의 체제이지 결코 신의 계시나 무조건적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한다.<sup>4)</sup> 이데올로기가 교회에 들어와 영향을 미쳐 기독교신앙이 이데올로기화 되어 버리면 초월적인 기독교신앙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성경은 또 하나의 도덕책과 윤리책 이상이 될 수 없다. 각종 이데올로기들과 결합된 사이비 복음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복음의 원리가 아닌 이데올로기화된 기독교신앙의 원리를 통해 영적인 공동체가 운영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국교회 내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논자는 배금주의 (Mammonism)에 주목을 하려고 한다.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에서 2005년 8월에 목회자와 사모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가장 우선해야 할 갱신과제에 1위가 31.8%의 응답자가 물질주의를 꼽았다.<sup>5)</sup> 21세기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하나님

- 
- 3) 다미선교회의 1992년 9월 28일 휴거소동, MBC PD수첩에 보도된 만민중앙교회, 영생교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 4)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서술: (CUP, 1999), 261.
  - 5) 김광오, “한국교회갱신과제,” 한국성결신문, 2005년 11월 12일, 10. 그 밖에 권위주의(26.7%), 교회/교단분열(22.2%), 종교다원화/세속화(36.6%), 개교회주의(24%), 기복주의(21.9%), 신행불일치(85.5%)를 꼽았다.

과 섬김의 자리를 다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돈과 재물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돈이 이 시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서 대결할 우상이다. 교회의 각종 비리에는 거의 예외 없이 돈과 연결 되고 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인 총회의 선거현장에서도 돈은 등장한다. 교회 재산을 놓고 성도들끼리 편이 갈려 싸우는 모습은 이제는 이상한 일도 아니다. 꼭 이런 비리의 현장에서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돈과 물질은 왜곡된 축복관을 통해 생활 깊숙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별히 90년대 초 '한국이 GNP 1만 달러를 달성할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의 수적 성장이 멈추었고, 대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감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요해 지면서, 교회가 부요해지면서 성장과 부흥이 멈추었다는 것은 분명 돈과 재물이 교회의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서는 마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재물의 유혹과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논자는 한국교회 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맘몬이즘에 실태와 그 영향을 파악하고 기독교적인비판을 하려고 한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맘몬이즘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을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 II. 맘몬이즘 (Mammonism) 이란 무엇인가?

성경속에 Mammonism 이란 단어는 물론 나오지 않는다. 이 단어는 '재물'이란 뜻의 Mammon이란 단어와 '~주의'라는 뜻의 ism 의 합성어로 현대에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ammonism 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게 한 Mammon의 성경적 용례와 Mammon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을 연구할 때 Mammonism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mamwna/j (Mamonas) 란 단어는 마태복음 6장 24절

과 누기복음 16장 9절, 11절, 13절에서만 사용된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고 하셨는데, 한글성경에서 ‘재물’로 번역된 Mammon은 아람어 Mamona 에서 유래한 것<sup>6)</sup>으로 본래의 뜻은 부(wealth)이다. 어원적으로는 ‘위탁한다’, ‘어떤 사람의 감독하에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7)</sup>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Mammon란 단어는 수동적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의지하는 것’, ‘위탁하는 것’이라는 능동적 의미로 변화되었고,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다.<sup>8)</sup> 예수님께서서는 본문에서 재물을 의인화하셨다.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섬김의 대상 즉 신의 한 종류로 간주하신 것이다.

Richard Foster는 돈에 대한 왜곡을 설명하면서, 돈을 전적으로 중립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돈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며, 단지 그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만 좋거나 나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맘몬을 ‘우리를 지배하려고 추구해 오는 하나의 힘’ (Mammon is a power that seeks to dominate us) 으로 규정한다.<sup>9)</sup> Jacques Ellul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신 것은 돈은 힘이라는 것이다’면서 Foster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sup>10)</sup> 확실히 맘몬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적인 힘이 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인격화’해서 표현하신 것은 바로 재물에는 참으로 영적인 속성이 있음을 지적해 주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고려한 예수님의 판단으로 보인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의 수단만이 될 없다. ‘돈’과 ‘인간’이 관계하

6) I.Howard Marshall, A.R. Millard, J.I Packer, D.J Wiseman, New Bible Dictionary 3rd E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6), 720.

7) Geoffrey W. Bromiley and others, ed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III.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232.

8) J. Boice, *The Sermon on the Mount*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2), 123.

9) Richard J. Foster, *Challenge of the Disciplined Life: Christian reflections on Money, Sex & Power*,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85), 25-26.

10) Jacques Ellul, *Money & Power*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4), 75.

지 않고, 멀리 따르만 존재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죄성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이 세력이 있다.<sup>11)</sup>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부를 자기들의 이상으로 삼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하반절)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돈이란 그분에게로 향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하는 위상승배이다.<sup>12)</sup>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재물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mammon이즘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시점이다. Mammonism 은 Mammon 과 ism 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며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정도가 될 것이다. ‘물질주의(materialism)와도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개념이다. 양승훈 교수는 ‘물질주의’를 ‘배금주의’의 확대개념으로 보면서, ‘물질주의’가 반드시 ‘배금주의’를 동반한다고 말한다.<sup>13)</sup> Mammonism 은 ‘재물’이 이데올로기화 된 것이다. 즉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재물의 부요를 위해 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John Stott는 ‘물질주의란 물질적 재화의 순수한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건전하게 그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sup>14)</sup> 이렇게 재물 또는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마저도 용인하는 가치관을 Mammonism 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Schlossberg의 지적대로 이것은 창조주 (the Creator)보다는 피조물(the creation)에서 궁극적 의미(ultimate meaning)를

11) cf. 황호찬, 돈, 그 끝없는 유혹 (서울: IVP, 1996), 37. 저자는 ‘돈이 가치중립적이라는 주장은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돈이 영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는 ‘그 이면에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한다.

12) Richard J. Foster, 28.

13) 양승훈, 263-265.

14) John R. W. Stott, Involvement Volume II: Social and Sexual Relationships in the Modern World (Old Tappan,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1985), 119.

찾는 우상숭배의 한 전형이다.<sup>15)</sup>

1981년 Goudzwaard 가 *Idols of our time*에서 물질적 번영이 이데올로기화 될 것임을 강력히 우려했는데, 그로부터 25년여가 지나는 사이에 맘몬이즘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영향하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중의 하나가 되었다.<sup>16)</sup> 그러나 Goudzwaard의 이러한 예고 이전에 이미 경제력이 역사의 궁극적 원인이 된다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맘몬은 신이었다. 또한 자본주의자들에게도 경제적 효율성과 성공의 최고의 선으로 우상화함으로 맘몬이 우상화 된지 오래다.<sup>17)</sup> 이제 맘몬이즘은 더욱 더 전략적이 되어져 '경제세계화'라는 시대 정신을 타고 전세계를 향해 공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상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세계화 (Economic Globalization)'는 '자유시장경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맘몬이즘적 성격을 띠고 전 인류를 압박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맘몬이즘이다.

### III. Mammonism 이 한국교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

#### 1. 기복신앙의 창궐

기복신앙(祈福信仰)은 '성경적 신앙'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복을 구하는 행위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八福)이 나오지 않는가? 다만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하는 복이 어떤 복이어야

15) Hebert Schlossberg, *Idols for Destruction: Christian Faith and Its Confrontation with American Society*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1983), 89.

16) Bob Goudzwaard, *Idols of our tim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1), 58-59.

17) Roanald J. Sider,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요한 그리스도인 한화룡 역*, (서울: IVP, 1998), 157-158.

18) 전광식 외 3인, *가난과 부요의 저편* (서울: SFC, 2002), 15.

하는가? 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대개 '현세적 물질적 축복과 장영만을 지향하는 신앙'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Mammonism의 영향아래 성경이 복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취향에 맞게 취사선택한 신앙의 한 형태이다.

구약성경에서는 물질적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같은 구약의 족장들은 다 부유했다(창 13:2; 27:28). 욥의 경우에도 '동방에서 소문난 부자'였다. 욥기의 마지막 거듭된 시련을 극복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욥 42:10). 신명기에서는 재물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묘사되고 있다(신 28:2). 전도서 5장 19절에는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말한다. 구약에서는 분명 물질적 부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한 양상이었으며, 신약시대에 나타날 보다 분명한 축복의 예표라고 볼 수 있다.<sup>19)</sup>

반대로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보다 물질적 부를 축복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신약은 신령한 축복을 더 강조하고 있다(마 5:1-12, 6:33, 고후 4:8) 또한 물질적 부가 가져올 위험성과, 우상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마 6:24, 딤후전 6:10, 27). 물질적 부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많이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신약의 강조점이 다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나라가 도래되었기 때문이다(막 1:15). 그러기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땅의 나라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에서의 복, 영원한 복을 지향하며 살아야만 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기복신앙에 깊이 몰들어 있다.<sup>20)</sup> 재물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나라의 복을 외면하고, 구약성경에 나타난 물질적 축복, 현세적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몇 년 전 한국교계를 강타했던 '아베스의 기도 신드롬'이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나님 그 분

19)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 II" 신학지남 통권192권(1981): 139.

20) 이상규, "성경에 나타난 부요의 양면성", 가난과 부요의 저편 (서울: SFC, 2001), 87.



에 대한 추구보다 재물의 풍요와 물질적 축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복신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맘몬이즘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의식적으로 재물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 사탄은 보다 간교한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잠입하여 참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인 것이다. 그 신앙에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지만 그 하나님은 복을 받기 위해 조정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물질적 축복, 현세적 번영 부자가 되는 것 때마다 승진하는 것 보는 시험마다 합격하는 것 항상 건강한 것 등 이 될 수는 없다. 그런 것은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빌 3:12-14).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 (마 6:10)이다.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고전 10:31).

## 2. 성장지상주의와 물량화의 팽배

맘몬이즘이 한국교회의 일반성도 개개인에게 기복신앙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한국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 것은 '성장지상주의'와 '물량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성장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연결되어 급속히 확산되었다. '잘살아 보세로 대변되는 '경제성장제일주의'는 이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가치들은 경시되었고, 목적달성을 위해 과정은 철저히 무시되었다.<sup>21)</sup>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인성이 황폐화 되었다면, 교회 내에서는 기독교의 진리가 훼손되었다. '교회성장'이라는 미명하에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가 외면되고, 영적인 성장에 힘쓰기 보다는 외형적인 성장, 물량적인 성장을 앞세우기 시작했다. 그런 이데올로기 하에서 한 영

21) 조성돈, "목회 패러다임의 60년 간격과 의미" 목회와 신학, 통권194호 (2006년 7월), 59.

흔은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대상이 아니라, 단지 더 모여야 할 '숫자'에 불과하였다.

맘몬이즘은 필연적으로 몰랑주의와 입을 맞추게 되어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맘몬이즘은 결국 재물의 축적을 통한 외형적 성장을 위해 사람을 '수'로 보도록 유혹한다. 이러한 몰랑주의는 목회자들의 인식 속에도 은연중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교계 매스컴들은 큰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성공한 목회자, 실력이 있는 목회자의 모델로 소개한다.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면 빠른 시간 안에 수적인 성장을 이루어 놓아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외형적 성장만을 강조하는 이런 성장지상주의 몰랑주의는 결국 외형적이고 비본질적인 가치들을 내세우고, 기독교 진리를 희석함으로 성숙치 못한 교인들을 양산했다.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는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밥그릇 싸움하는 경쟁관계로 만들어 버렸고, 한국교회라는 큰 틀을 잊게 해 버렸다. 그 결과 교회는 사회 속에서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개인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함으로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 3. 번영신학(Theology of Prosperity)의 확산

몰랑주의와 성장제일주의의 이면에 있는 신학적 뿌리가 바로 번영신학<sup>22)</sup>이다. 맘몬이즘은 번영신학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번영신학의 관심이 현세적인 축복, 물질, 건강, 성공 등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복신앙이 성도들의 신앙행태로 나타났다면, 번영신학은 몰랑주의와 성장제일주의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번영신학은 '하면 된다'는 가능성의 철학을 기초로 한 신학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태동된 신학으로 '형통과 부유가 축복의 증거이며 신약시대 성도들이 마땅히

---

22) 이 용어는 미국 Howard University 교수인 Dr. James Tinny에 의해 그의 논문 The Prosperity Doctrine: An Accretion to Black Pentecostalism 에서 처음 쓰여졌다.

구할 바라고 주장한다.<sup>23)</sup> 번영은 모든 신실한 신앙인들의 마땅한 권리라는 것이다.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부와 건강과 행복'이 곧 복음이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번영신학의 메시지는 6.25동란 이후 가난에 찌들고 농촌 고향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 도회지로 모여든 심령들에게 기쁨의 단비와도 같았다.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의 수적 성장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오히려 성장침체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예수를 믿었다면 가난에서 벗어나, 밥술을 먹게 되면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김의환 교수는 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성장정체의 대표적 원인을 이 번영신학에서 찾으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sup>24)</sup> 그는 번영신학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했는데, 첫째, 물질적 풍요나 번영을 강조하는 복 개념의 문제, 둘째, 성도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십자가를 왜곡한 고난의 개념, 셋째, 신학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고 있는 인본주의적 경향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번영신학은 다른 복음(갈 1:8)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심창섭 교수 또한 독일교회의 예를 들며 한국교회에 만연한 번영신학을 비판했다.

당시 독일교회는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보았지 루터가 지적한 십자가를 지는 교회의 모습은 상실해 있었다. 그가 보는 독일교회는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은혜만 요구하는 값싼 은혜의 우물에 빠져 있었다. 한국교회도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번영의 신학을 추구하였으며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사회에 대한 결정적인 실수였다.<sup>25)</sup>

23)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 I" 신학지남 통권190권(1981, 봄호): 57.

24) 김의환, "한국교회의 성장둔화와 번영신학", 신학지남 통권256권 (1998, 가을호): 11-16.

25) 심창섭, "한국사회의 위기와 교회의 역할", <http://hwoijoong.hihome.com/lecture3.htm>, (accessed Feb, 20, 2006).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고난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에게 맘몬이즘은 왜곡된 가치를 추구하도록 유혹한다. 맘몬이즘은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는 면에서 번영신학과 코드(Code)가 맞는다.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축복을 간과한 번영신학에 세속의 이데올로기인 맘몬이즘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맘몬이즘은 번영신학을 통해 교회의 영적성장을 중단시켜 버렸고, 교회의 세속화를 심화시키며,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켜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IV.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인 창조-타락-구속의 입장에서 볼 때 맘몬이즘은 타락 이후,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며 이기적인, 총체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생래적으로 선호하는 우상숭배의 한 전형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24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재물이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위험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공관복음(마 19:16-30, 막 10:31, 눅 18:18-30)에 나온 부자관원(청년)의 이야기이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계명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셨다 (눅 18:22 상반절). 계명을 지키었다고 대답한 이 관원에게서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막 10:21, 눅 18:22)을 보았다. 그 관원은 재물을 하나님과 그의 이웃 보다 더욱 사랑했던 것이었다.<sup>26)</sup>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26) Robert H Stein,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24. LUKE*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92), 458.

나를 좇으라”(눅 18:22)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따르라’는 명령은 ‘파는 것과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다. 여기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파는 것과 ‘따르는 것은 같은 명령의 두 양상(two aspects of the same command)이다.<sup>27)</sup> 이 관원에게 있어서 ‘모든 소유를 팔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첫 걸음인 것이다.<sup>28)</sup> 그것은 이 관원에게서 물질적 풍요가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위험성, 즉 우상화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다. 이 관원에게 있어서 부에 대한 집착은 영생을 잃어 버릴 만큼 컸던 것이다.

성경은 물질적 축복이나 부 자체를 잘못으로 정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삶의 형태로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성경은 ‘재물의 영적인 위험성을 강조한다. 재물의 첫 번째 위험성은 John Stott의 지적대로 ‘자만심’(pride)이다.<sup>29)</sup> 부한 것은 디모테전서 6:17의 말씀처럼 마음을 높িয়ে 될 가능성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 쉽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멸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성경속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눅 16:19-21)와 한 부자의 비유(눅 12:13-21)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고전 15:28)이요 창조자(창 1:1)이시다. 재물 역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결코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맘몬이즘은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로부터 자유 해야 한다. 맘몬이즘은 심각한 우상숭배이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재물이 줄 수 있는 심각한 영적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27) Ibid.

28) cf. John R. W. Stott, *Involvement Volume II: Social and Sexual Relationships in the Modern World*, 115. Stott는 재산의 포기가 영생의 조건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규정이 아님을 말한다.

29) Ibid., 118.

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눅 12:15)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약 5:3)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  
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일 3:17)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  
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도다” (딤후  
6:10)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비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  
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  
라 하셨느니라” (히 13:5)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으나, 돈은 이제 ‘경제행위의 도구’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숭배되어 지고 있다. Richard Foster의 지적대로 돈은 곧 권력임을 자처한다.<sup>30)</sup>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일까? 현대인들의 꿈은 은통 부자가 되는 것이다. 제일기획의 조사에 따르면 2635세대의 최대관심은 ‘돈’이었다고 한다.<sup>31)</sup> 그러나 어디 2635세대만의 관심일까? 돈과 재물은 아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의 대상일 것이다. 대학에는 부자학(富者學)이라는 과목이 개설되기도 했으며<sup>32)</sup>, ‘10억 모으기’와 같은 재테크 관련 서적이 항상 베스트셀러에 포함된다. ‘부

30) Richard Foster, Challenge of the Disciplined Life: Christian reflections on Money, Sex & Power, 2.

31) 유주연, “2635세대” 매일경제신문 2005년 10월 31일, A2.

동산 투자와 '로또 복권 신드롬'은 또 얼마나 뜨거운가? 이 모든 것들이 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다는 '황금만능주의 사상은 맘몬을 메시아적 위치에 올려놓는다. 이러한 사상에 몰든 사회는 점점 피폐되어 가고 있다. 맘몬이즘은 사람들을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다. 윤리와 도덕은 버려졌고, 생명은 경시되고, 성은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소유에만 관심을 갖고 분배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함으로 사회를 양극화 시키고 있다. 이제는 맘몬이즘은 한 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보다 교묘히 '경제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달려들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지 이미 오래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Master로 섬겨야 하는 교회 속에 들어와서 맘몬이즘은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놓도록 교묘히 성도들을 부추기고 있다. 보배로운 피로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변질시켜 놓고 있다. 2005년 실시된 기독교대한성결교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분쟁요인'의 1순위가 '건축과 재정'으로 꼽혔다.<sup>32)</sup>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교회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설문결과이다. 이민교회의 경우 특별히 교회 안에 분쟁이 잦은데,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교회의 경우는 그 싸움이 끝이 없다는 지적인 재물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맘몬이즘은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가 아닌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부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물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Sider의 말대로 예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sup>34)</sup>

32) 송양민, "부자학" 조선일보 2005년 3월 4일, A46.

33) 김근영, "한국교회 분쟁요인 1위", 크리스천투데이, 2005년 3월 14일, 17.

34) Roanald J. Sider,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요한 그리스도인, 한화통 역, 159.

## V. 맘몬이즘 극복을 위한 교회의 방안

창조타락구속의 틀에서 볼 때 타락한 이후 인간의 마음은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악한 행실들만 나올 뿐이라고 전제한다(막 7:20-23).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추종한다.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오직 복음밖에 없다. 복음은 우리의 깨어진 영적, 지성적,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 환경적 등을 회복한다. 맘몬이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구속의 틀 안에서 찾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sup>35)</sup>

### 1. 성경적 축복관의 재정립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맘몬이즘의 영향아래 놓이게 된 것은 비성경적인 왜곡된 축복관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맘몬이즘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축복관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죄성은 가만히 두어도 지구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려 든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축복관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한다. 재직세미나 등과 같은 기회를 통해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 수시로 전 성도들에게 성경적 축복관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의 축복관은 세상의 축복개념이 유입되어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 축복관을 재정립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축복받기 위한 십일조와 헌금,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축복만을 간구하는 축복기도, 일부 부흥사들에 의한 헌금을 걷기 위한 부흥회(富興會, Fund Raising Campaign)<sup>36)</sup> 등이

35)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 I", 46.

36) Ibid., 51.



왜곡된 축복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교육을 통해 성도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복음이 제시하는 바른 축복관을 정립시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한국교회의 축복관은 구약시대의 축복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데 문제가 있다. 구약시대에는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물질적 축복은 동시에 영적인 축복을 내포한 것이고, 신약시대에 나타날 축복의 예표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sup>37)</sup> 신약시대에는 현세적인 축복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마 6:11, 24, 딤후 4:4). 다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신령한 축복을 더욱 강조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 (고후 4:18, 마 6:24).<sup>38)</sup>

성경적인 축복관을 정립할 때 반드시 병행해야 할 작업은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성구들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1-6, 빌 4:13, 요3서 1:2 등과 같은 구절들이다.<sup>39)</sup> 신 28:1-6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표적 축복을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스라엘이 받은 형통과 물질 축복은 구속의 언약관계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빌 4:13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 안에서 반궁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는 뜻인데, 후자의 경우에만 적용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요한3서 1:2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사도요한의 기원은 한국교회에서 '3박자 축복'이란 이름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다. 이 것은 영적축복, 물질축복, 건강축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가이오에 대한 사도요한의 기원이다. 그렇게 기원한 이유가 그 뒤 5절 뒤에 나타나있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37)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 II", 139.

38) Ibid.

39)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 I", 57-61.

물질을 바치고, 소유를 아끼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까지 주실 것을 간구한 것이다.<sup>40)</sup> 이런 문맥을 무시하고 '네 영혼의 잘됨' 보다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 지는 것'에만 강조하여 그저 잘되게 해 달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다. 마 6:33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결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 그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 2. 성경적 물질관의 재정립

맘몬이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적 축복관과 더불어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물질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재물의 축적이나 부 자체를 잘못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또한 금욕주의를 강조하거나, 성도가 되도록 가난하게 살도록 권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도가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며, 어떤 자세로 얻은 재물을 관리하며, 쓰느냐가 문제이다.<sup>41)</sup>

우리는 재물을 대할 때마다 영적인 위험성을 늘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재물이 갖는 이상성을 강조하셨다(마 6:24). 성경 여러 곳에서 재물의 이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다른 어떤 것을 섬길 수 있는데, 재물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마 그리스도인 어느 누구도 재물을 우상으로 인식 하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물은 숨겨진 신이 되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다.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다.

---

40) Ibid., 59-60.

41)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 II", 156.

물질을 관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칭지기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눅 16:1-13의 ‘불의한 칭지기의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주인은 불의한 칭지기를 칭찬했다. 잔피와 속임수를 칭찬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불의한 칭지가 돈을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했고, 돈으로 미래를 준비했다는 점 때문이었다.<sup>42)</sup> 이런 몇 가지 점에서 빛의 아들들이 본받을 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된다(딤후 6:17).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하인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만 한다. 칭지기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재물이 인간들의 소유가 아니다.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은사들을 맡았을 뿐이다. 주인에 의해 물질을 맡은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데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4:9-10에서는 ‘이웃사랑하는 자를 ‘선한 칭지기’로 말했다. 선한 칭지기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자’인데,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diakoneō(diakoneo)인데 첫 의미가 ‘식사시중을 들다’라는 뜻이다.<sup>43)</sup> 여기서 신약성경의 집사인 diakonoi(diakonoi)가 나왔다. 불쌍한 사람들은 손님으로 맞아 대접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이 선한 칭지기의 해야 할 역할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검소와 절제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한다. 강영안은 ‘검소와 절제를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검소와 절제를 설명한다.<sup>44)</sup>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제와 검소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찾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검소와 절제는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절제와 검소의 동기는 이 세상이 악하거나 재

42) Ibid., 158-159.

43) Verlyn D. Verbrugge, editor. The NIV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0), 1348.

44) 강영안, “금욕? 즐김?”, 가난과 부요의 저편 (서울: SFC, 2002), 147.

물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웃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조금 절약하고, 아껴 써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바울은 고백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2-13).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부에도 만족할 수 없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가난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다. 절대감사가 나올 수 있다. 맘몬에게서 자유 할 수 있다.

### 3. 배플과 나눔의 실천

Ronald Sider는 부의 위험을 4가지로 정리해 말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이요 둘째는 부를 추구하다가 전쟁을 일으킴이요, 셋째는 가난한 자들을 잊어버림이요, 마지막으로 끝없는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sup>45)</sup> 맘몬이즘은 하나님과 이웃 모두를 잊어버리게 한다.

인간의 끝없는 탐심을 보여주는 예화가 있다. 어느 부자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만족하겠나?"고 물었을 때, 그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갖고자 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인간은 아내 곧 다른 것들을 탐하게 된다. 인간의 탐심은 구멍난 항아리와도 같다. 채울래야 도무지 채울 수 없다. 탐심은 사람을 지배하려 든다. 탐심의 본질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와 간음, 미움이나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나"(엡 5:5).

---

45) Ronald J. Sider,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A Biblical Study (Downers Grove, IL: 1984), 108-111.

재물을 우상 삼는 맘몬이즘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반대정신으로 나가야 한다. 성도의 삶 가운데 '배품'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만 한다. Jill Briscoe 사모는 탐심에 대한 해독제는 '배품'이라고 지적했다.<sup>46)</sup> 우리가 가진 것들- 시간 에너지 열정 재물 등을 나눌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영적 부를 주신다는 것이다. 배품은 피조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시다. 구약성경의 이삭줍기(레 19:9, 룻 2:15)와 같은 규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만 한다. 복음을 전함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

배품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홀의 마음'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적 논리를 세운 Adam Smith는 자기 이익이 경제 활동의 중심 동기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sup>47)</sup> 그러나 그때 이미 그는 이미 자유시장경제의 그늘을 내가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이론을 보완해 주는 대안으로 '공정한 관망자(impartial spectator)' 이론을 제시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경제학적으로 효율(efficiency)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관망자 이론의 핵심은 때로 인간은 효율을 추구하는 일에서 한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면 관망자의 입장에 서게끔 해 주는 동력은 무엇일까? 이상원은 그것이 '동정심'이라고 말한다.<sup>48)</sup> 기독교의 용어를 빌리면 그것은 '공홀'이다.

하나님은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셨다(엡 1:2).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이웃을 향해 공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통해 이웃을 향해 배품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맘몬이즘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46) Jill Briscoe, "탐심에 대한 해독제는 배품", 목회와 신학, 통권194호 (2005년 8월), 110.

47) 이상원, "무한 경쟁 시대와 위기의 인간", 목회와 신학, 통권190호 (2005년 4월), 57-60. 재인용, 이상원은 Adam Smith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48) Ibid., 61.

하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출 22:21-24).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잠 19:17, 마 25:31-45).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관심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도둑질만이 흠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크리스천에게는 도둑질에 해당한다. 이 땅에서 나누지 않고 쌓은 보물은 좁과 동록이 해하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도적질 당하지 않는다(마 6:19-20).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은 베품과 나눔을 통해 이루어진다(눅 12:33-34).

#### 4.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산업화 시대의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은 흡사 비슷하다. 한국사회의 경제가 급성장한 지난 60~70년대 산업화 시기에 교회 또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라는 절대선을 추구해 나가면서 과정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경제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사회는 정신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한국사회는 '한국병'이라는 증병을 앓게 되었다. 이번에 일어난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사태'가 이러한 한국병의 모습들 조급증, 속임수, 실적주의, 한탕주의, 무시안일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성장만을 과정을 무시하며 달려간 한국사회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수적인 성장에 집중하며 달려가면서, 그에 걸 맞는 성숙을 추구하지 못한 한국교회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되었고, 결국 교세성장의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맘몬이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그것이 맘몬이즘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되는 것은, 외형성장주의와 몰량화에는 항상 맘몬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지만, 외형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는 맘몬의 유혹에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성숙에 뒤따르는 자연스런 성장'이 한

국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외형성장이 비판이 되는 것은 그에 걸 맞는 성숙이 함께 이뤄지지 못함 이어서이고, 사람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외형성장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행 2:47) 사도행전속의 초대교회에도 숫적 성장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수적 부흥은 ‘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 부흥이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을 때 나타난 부흥이었다. 건강한 성장은 성숙이 동반된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 즉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연적인 교회성장의 길이 될 것임을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 VI. 결 론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인 맘몬이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였다. 맘몬이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앉는 우상숭배이다. 재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중의 일부분일 뿐이다. Ronald Sider의 말대로 재물은 우리의 연인이 아니다. 연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애정의 표시다.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sup>49)</sup>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유사 이래로 늘 재물을 목적시 해왔고,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맘몬이즘에 지배되어 왔었다.

맘몬이즘은 사회 속에서 인간을 수단화해 버렸다. 인간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가 아닌 돈의 유무에 의해 판단하도록 만들었다. 생명을 경시하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며, 쾌락을 부추기는 등의 악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재물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 또한 맘

49) Ronald J Sider,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A Biblical Study*, 112.

맘몬이즘의 도전 앞에 자유하지 못했다. 맘몬이즘은 한국교회 안에서 기복주의 신앙과 외적성장주의와 몰랑화, 변영신학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침으로 복음을 퇴색하게 하며, 영적 공동체의 순수성을 파괴되고, 영혼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수단시 하도록 조장해 왔다. 그 결과 세상 속에서 공신력을 잃게 됨으로,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퇴하게 되었고 자연 성장 침체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세월이 더욱 흐를수록 맘몬이즘의 세파는 더욱 더 거세어질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소득 3만불 달성'이 마치 이 나라가 살길인 것 마냥 국가적 비전이 되어 국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IMF 이후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불안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사오정, 오류도란 유행어가 만들어지는 경제적 불안정의 사회 속에서, 돈과 재물은 그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담보해 줄 것 같은 유혹을 보내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인간의 경쟁심과 탐욕을 무제한으로 긍정한 이데올로기가 경제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 위기를 직시하고, 맘몬이즘 우상을 타파하기에 힘을 써야 한다. 맘몬이즘을 극복하기 위해 논지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올바른 성경적 축복관과 성경적 물질관을 정립하기 위해 교회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성도들이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도록 도전해야 한다. 교회는 이제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만이 맘몬이즘을 극복하는 것이요, 한국교회의 살 길이다. 한국교회는 다시금 선명한 복음을 통해 맘몬이즘과 같은 우상을 제거해 내야 한다. 배금주의(拜金主義)를 넘어서 오히려 금을 주관하는 주금주의(主金主義)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sup>50)</sup>

수많은 비판과 질책이 한국교회를 향해 융단폭격과 같이 쏟아지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거센 세속화와 이데올로기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건히 붙잡을 때, 복음의 영

50) 송제근,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동의 실수", 목회와 신학, 통권192호 (2005년 6월), 89.



향력은 사회를 향해 퍼져 나갈 것이고,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맘몬이즘, 성장지상주의, 기복신앙, 번영신학, 물질관

KeyWords : Mammonism, Theory of Prosperity, View of Money

## 참고문헌

- 국민일보, “한국교회미래 리포트,” 2005년 1월 26일
-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 I”, 신학지남, 통권190권 (1981, 봄호): 57.  
    , “성경적 축복관 II”, 신학지남, 통권192권 (1981, 가을·겨울호): 139.  
    , “한국교회의 성장둔화의 변영신학”, 신학지남, 통권256권 (1998, 가을호): 11-16.
- 매일경제신문 “2635세대”, 2005년 10월 31일, A2쪽.
- 브리스크, 질, “탐심에 대한 해독제는 배똥”, 목회와 신학, 통권 194호(2005년 8월), 110.
- 사이다, 로날드,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요한 그리스도인 한화용 역, 서울: IVP, 1998.
- 심창섭 “한국사회의 위기와 교회의 역할”,  
<http://hwoijoong.hihome.com/lecture3.htm> (accessed Feb, 20, 2006).
-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1999.
- 이상원 “무한 경쟁 시대의 위기의 인간”, 목회와 신학, 통권190호 (2005년 4월), 57-60.
- 송재근 “교회 공동체의 중심아동의 실수”, 목회와 신학, 통권192호 (2005년 6월), 89.
- 조선일보, “부자학”, 2005년 3월 4일, A46.
- 조성돈 “목회 패러다임의 60년 간격과 의미”, 목회와 신학, 통권194호 (2006년 7월), 59.
- 전광식 외 3인, 가난과 부요의 저편, 서울: SFC, 2002.
-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교회 분쟁요인 1위” 2005년 3월 14일, 17.
- 한국선교연구원 편, 한국선교해드북 1990~2003, 서울: 한국해의선교회출판부, 2003.
- 한국성결신문, “한국교회갱신과제” 2005년 11월 12일.
- Boice, J. The Sermon on the Mount.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2
- Bronmiley, Geoffrey W. and others, ed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III.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 Ellus, Jacques Money & Power.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4.
- Foster, Richard J. Challenge of the Disciplined Life: Christian reflections on Money, Sex & Power. New York: Harper San Francisco, 1985.
- Marshall, I. Howard. and others, New Bible Dictionary 3rd Ed.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1996.
- Goudzwaard, Bob. Idols of Our tim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1.
- Schlossberg, Hebert. Idols for Destruction: Christian Faith and Its Confrontation with American Society.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1983.
- Sider, Ronald J.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A Biblical Study . Downers Grov

e, II: 1984.

Stein, Robert H.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24. LUKE*.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92.

Stott, John R. W. *Involvement Volume II: Social and Sexual Relationships in the Modern World*. Old Tappan,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1995.

Verbrugge, Verlyn D. editor. *The NIV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00.

---

김정일

한국대 디지털정보공학과 총신대신대원 신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캐나다 VIEW/ Trinity Western University에서 연구중.